

광양시, 내년 청년후계농 선발

최장 3년...월 최대 1백만 원 영농정착금·농지·자금·기술 종합 지원 만 18~40세 미만 내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수



광양시는 농업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공급 등으로 농업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청년후계농'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청년 농업인과 신규 청년 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업창업과

연계한 농지와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도입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청년후계농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서류·면접 평가 후 3월 말까지 청년후계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영농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며, "농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의 도전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격과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인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2018년부터 총 18명을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하여 농업 혁신 성장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에는 청년농업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토지행정평가 '대상' 수상

2013년부터 8년 연속 입상...2014년 이후 6년 만에 대상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다.

토지행정평가는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1년 성과에 대한 평가로 ▲토지행정, ▲지적, ▲지적재조사, ▲주소정보, ▲공간정보 등 총 20개 항목, 70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을 위한 실거래 정밀조사 실시, 도면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주권 보호, 지적불부합지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확한 주소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고해상도 항공영상 제공,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특조법TF팀 운영, 토지행정연수대회 대상 수상 등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과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행정 전반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대상 수상으로 순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입상하였으며, 특히 2014년 대상 수상 이후 6년만에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재산권 보호와 시민편의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촉촉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해소 노력



보성군은 전라남도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읍면 인적안

전망 운영 활성화 △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군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강화를 위해 읍·면에 '맞춤형복지' 설치 및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읍면 기능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수행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와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코로나19 극복 공동선언문 노사 상호 신뢰 바탕 위기 극복·고용유지 '상생 노력'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여수시장 권오봉)는 '제3회 노사민정협의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개최하고, 28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3억 1900여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보고했다.

노·사·민·정은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 구축에 최대한 노력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는 경영개선 노력과 고용유지를, 노동계는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민·정부는 임대료 인하, 소비촉진 운동 등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군민 편의위해 야간에도 민원처리 실시

고흥군은 오는 2021년 1월 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목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목한 야간 민원실'은 2021년 군민 행복더하기 신규 시책의 일환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매주 목, 화요일 밤 9시까지 군청 종합민원관에서 실시하며, 대상 업무는 △여권 신청 △전입세대 열람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총 24종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급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하거나, 근무시간을 놓치시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군민에게 친숙하고 행복한 민원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한 군민 등의 불편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